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이 용 교**

- I. 서론
- II. 본 연구의 분석틀
- III. 이촌 청소년의 초기 정착과정
- IV. 이촌 청소년의 중기 정착과정
- V. 이촌 청소년의 후기 정착과정
- VI. 결론

I. 서론

1. 연구목적

급격한 도시화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논할 때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미치는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도시화가 주로 농촌인구의 도시정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인구이동의 주체인 '이촌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¹⁾

그러나 '이촌자'에 대한 연구경향은 이촌자의 시각에 의해서 보다는 도시계획자, 인구학자, 사회학자 등에 의해서 볼 가치적으로 연구되거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촌자의 도시이주를 막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들의 도시정착을 애정어린 시각에서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은 수도권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관변 연구기관의 연구논문에서 찾을 수 있고, 후자의 시각에서 쓴 것은 몇분의 원로, 중견 사회학자의 저작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도 도시생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농촌에서 도시로 온 '도시이입자' 또는 '이농민'이 도시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초

* 이 논문은 본원의 1989년도 개별연구사업인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 것임.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1) 이은숙, "도시이입자의 적응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13집, 1979, p.187

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혼자들이 도시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는 이혼자의 과반수 이상이 개인이나 일부가족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중심으로 연구하여 개인 혹은 일부가족단위 이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의 실체를 소홀히 하였다.²⁾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족단위 이혼보다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된 개인단위 이혼 청소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청소년의 법적 개념은 9~24세일지라도 청소년기에 이혼한 사람이 20대 후반(대개 29~30세)까지 어떻게 정착하여 왔는지를 연구한다.

2. 연구내용

이혼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을 연구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이혼 초기에서 현재까지 진로설정, 학업, 직업, 주거 등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어떠한 양상이었는가?
2. 이혼 초기에서 현재까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관계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3. 배우자와의 결혼과정, 이혼후 부모 형제

자매등 가족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와같이 본 연구는 이혼 청소년의 정착과정 그 자체, 즉 이혼 청소년이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욕구와 문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동원과정에 대한 사실발견이란 차원에서 증단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혼 청소년의 이혼 당시 개인의 특성과 배경, 그리고 이혼의 결정과정과 이주과정이 이혼자의 도시정착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기존연구에서도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후속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³⁾

3. 연구방법

이혼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 질문지조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의 경우 이혼자의 도시 정착에 관한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 그리고 표본 지역의 인구 변화를 살필 수 있는 통계연보등을 살펴보았다.

질문지조사는 기존의 조사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문항과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문항을 조합하여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우편 조사하였다.

2) 최재석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 부락에서 지난 10년(1975-85년)동안의 개별 이혼자는 106명으로 그 부락 거주인구의 40.8%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개별 이혼자의 98.4%가 24세이하의 청소년이다. 한편, 같은 기간에 가구단위 이혼 가구는 23가구로 그 부락 거주가구의 29.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재석,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1988, pp.58-68 이에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3) Sarah Green, *Dimensions of Migrant Adjustment in Seoul,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1977)

Lee On-Jook,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4

윤여덕 김종채, 이농민의 도시 적응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면접조사는 면접 가능한 사람들에게 질문지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생생한 삶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 조사와 면접조사는 관련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설정하는데 심사 숙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촌자의 출신지와 그들의 연령, 성별 등이 중요한 변수임을 감안하여, 조사연구의 대상을 특정지역 특정 연령층으로 제한하고 이들 중 이촌자의 수와 이촌자 중 표본을 택하여 도시 정착과정을 조사하고자 했다.

본 조사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남 보성군 울어면에서 1973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남자 졸업생 123명 중에서 이촌한 남자를 대상집단으로 하여 표본조사를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주소가 정확히 파악되는 사람 20명에게 우송하여 14명이 응답하였고, 면접조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촌자 9명과 이촌한 바 있으나 현재는 울어면에서 살고 있는 귀환 이동자 3명에게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89. 11. 1-1989. 12.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II. 본 연구의 분석틀

1. 기존 연구의 검토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은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구되기 보다는 이촌가족이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의 극히 일부로 연구되거나, 인구 이동의 한 형태로 언급될 뿐 이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에 대한 애절어린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 몇가지의 분석틀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틀을 모색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이촌자의 도시이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꽤 많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주로 대도시(특히 서울)로 이주한 사람에 대한 생활실태를 연구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도시이촌자들의 이주후 실태와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비교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치고 어떤 이론적인 틀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않다.

더우기 도시생활에의 정착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극히 드물다. 이점에서 Green과 이은죽의 논문은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 연구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Green은 도시이입자의 적응을 주제로 하여, 이촌시의 배경적 특성, 이동과 관련된 특성, 이동과정, 이동시 도움이 도시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섯가지 연구주제를 검토하였다.

- (1) 도시거주 기간에 따라 도시이입자들은 도시원주민(평생도시에 거주한 사람)들과 물질적, 사회적 및 태도의 차원에서 어느정도 비슷한가?
- (2) 사람들의 배경적인 특성은 도시적응이라는 종속변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 (3) 이동과 관련된 요인은 어느 정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 (4) 이동시의 도움은 얼마나 적응의 변이를 설명하는데 기여하는가?

- (5) 끝으로 이상의 몇가지 묶음의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Green이 설정한 요인들은 이촌 청소년의 도시 정착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Green은 이주자의 이동과 적응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촌자의 도시정착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해는 불가능하고 다만 현재의 결과만을 비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reen의 분석틀은 서울에로의 이동이 이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행위”라 하고 이입자들도 서울 원주민에 가까운 수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였다.

이은죽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특성, 동기, 이동과정 등에 관한 탐색적 분석에서 종래의 귀환이동이론이나 실증조사가 소홀히 하였던 변수인 도시에서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도시적응의 정도가 귀환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가정을 추구하였다.

그녀의 연구 주안점은 물론 귀환이동의 설명과 그 결과에 있지만 도시적응변수를 포함하여,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을 모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특히 그녀는 Green의 적응변수를 발전시켜 객관적, 심리적(주관적) 적응으로 대별하고 객관적 적응을 다시 (1) 생태적-주거상의 적응, (2) 직업적 적응, (3) 경제적 적응, (4) 사회적 적응으로 세분하여 독특한 적응변수를 많이 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귀환이동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이입자’의 적응의 역동적인 과정을 포괄적으로 또

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윤 여덕과 김 종채는 이농민의 도시적응과 도시 사회체계에의 통합과정을 살펴보려는 연구에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이농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등 일곱가지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가족사항, 이주경로, 경제활동(I), 경제활동(II), 도시적응과정, 사회활동, 앞으로의 희망 등 일곱가지 대항목별로 수많은 설문을 조사하였으나 시론의 수준이었다.

2. 본 연구의 분석틀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촌자의 도시정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현재의 생활 상태를 기술하거나, 이촌자의 배경변수와 현재의 상태간의 상관 관계를 밝혀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하여왔던 이촌시기와 현재의 삶 사이의 기나 긴노정, 즉 도시정착과정을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주요한 변수들을 포괄하면서도 이촌이후 지금까지의 삶을 몇가지의 시기로 나누어서 각 시기마다 이촌청소년들이 직면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동원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시기구분은 편의상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과 군복무기, 군체대후 현재까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모집단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촌을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시절을 이촌초기, 대학교시절과 군복무기를 이촌중기, 그리고 군체대후 현재까지를 이촌후기라고 명명한다. 물론 국민학교나 중학교 졸업직후부터 직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지

〈표 1〉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도시정착과정

분석내용	시기	이촌 초기 (고등학교 시절)	이촌 중기 (대학교시절+군복무기)	이촌 후기 (군복무이후+현재)
진로 설정		고입/취업	대입/취업/입대	취업/전직
학업		진학과정 면학과정	진학과정 면학과정	진학 과정 면학의 꿈
직업		첫 취업과정 직업력 직장 생활	취업 과정 직업력 직장 생활	취업 과정 전직 과정 직장 생활
주거		첫 주거지마련	주거 생활	주거 생활 내집 마련
관계망		지연, 학연, 직연, 종교연 이성 교제	지연, 학연, 직연 종교연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과정	지연, 학연, 직연 종교연 배우자 선택과정 결혼 생활

않지만 편의상 다른 친구들의 수학기기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각 시기별로 진로 선택과정, 학교 혹은 학업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당면한 문제와 극복과정 그리고 주거 마련, 사회관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는 청소년을 하나의 연구대상 혹은 객체로서 놓고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온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을 가능한 한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III. 이촌 청소년의 초기 정착과정

이촌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에 대한 연구는

인구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그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인구이동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공간상에서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의 거주지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 사망과 함께 인구 성장과정의 세가지 측면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찌기 인구학자의 주된 관심사이었으나, 이촌자들이 도시정착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연구한 논문들은 많지 않다.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이촌자들의 적응문제를 그들의 인구학적 내지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고 이촌자의 도시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관계망에 소홀히 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촌 청소년의 초기정착

4) Tuck Hong Paul Chang, "A Review of Micro Migration Research in the Third World Context", in Gorden F.De Jong and Robert W.Gardner (ed.), *Migration Decision Making*,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p.305. 김정연, 농촌인구의 이동과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6 재인용

5) 박재규, 도시 빈민지역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5, p.3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판단되는 “왜 이촌하였는가?” “어떻게 정착하였는가?”에 초점 맞추면서 그들이 “당면한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동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진로

농촌 청소년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이유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이고, 두번째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취업도 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야간학교에 다니거나 산업체부설학교 혹은 통신고등학교나 점정고시를 준비하려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농촌 청소년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유는 크게 학업, 취업 그리고 취업경 학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각각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도시에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모집단으로 택한 1973년 2월 울어면 국민학교 남자 졸업생의 경우, 약 6월(73명)이 그해 3월 9일에 개교한 울어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나머지 4월은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므로 이론상 비진학자와 중퇴자 57명은 이 시기에 이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의 연령이 만 13세 내외이기 때문에 혼자 이촌하여 도시에 정착하기에는 부적합한 연령으로, 몇년간 집안일을 돌보면서 이촌을 탐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울어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울어면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보성군내에 있는 보성농업고등학교, 복내고등학교, 벌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광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진학의 시기는 울어면 청소년들의 이촌시기와 대부분 일치하고 이들은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2. 학업

본 연구의 모집단 123명 중에서 현재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43명으로 전체의 35%이다. 이 중에도 본가와 가까운 보성군 내에 소재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도 10명이나 되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학업으로 인한 이촌 청소년은 33명으로 줄어든다. 이들의 도시정착 과정은 취업으로 인한 이촌 청소년보다는 안정된 수준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학해야 한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도 적지 않다.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한 사람은 광주가 연고지이기 때문에 유학한 것은 아니고, 광주가 도청소재지이고 그곳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학한다. 그런데 농사꾼의 입장에서 자식을 광주로 보내는 것은 공납금과 교과서 대금과 같은 공교육비도 부담스럽지만 3년동안 숙식할 수 있는 비용을 장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보성군 관내에 있는 몇몇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숙식비 등은 조금 적게 들겠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대학진학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할 것인지는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함께 부모와 자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입학은 하였지만 3년동안 무사히 보내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3년 동안 생계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어려운 영어, 수학을 완전히 정복하여 대학문에 필승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부담감은 3년동안 가슴을

짓누르는 낯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은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 물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입은 떨어지지 않고, 교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질문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학과공부와 진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형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자원이다. 실제로 모집단 중에서 세칭 유명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손위에 유명대학에 다니는 형이 있었다.

3. 직업

비록 청소년기에 직업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이는 국민학교 이후에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자의라기보다는 집안의 경제사정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취업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농사 밖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촌 구석에서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돕다가 이촌하게 되는 이촌 청소년의 취업도 그 시기에 따라서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 졸업 후 등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본 면에 중학교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진학마저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취업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도시에서 가장 허드렛 일에 속하는 식당의 배달원(보이), 영세 제조업체의 보조(시다), 상점의 점원 등이다. 이러한 일거리는 중학교를 나오거나 소위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도 널리 열려져 있는데 이때 일하는 사람의 적성은 깡그리 무시되고 다만 좀 더 안정된 일거리에 취업하느냐 여부는 소개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직장의 소개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고향친구나 직장동료 등 대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배운 것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촌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은 우선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을 큰 은혜나 배푸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조건이나 임금을 따지는 것은 사치에 해당될 뿐이다. 18세도 안되었는데 고용해 준 것만도 고마워하라는 상황에서 이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길은 기술을 취득하여 기술자가 되거나 장사를 배워 자신도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나, 그 시기에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그 터를 닦을 수 있을 뿐이다. 그 터라도 닦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한한 인내와 근면한 삶의 태도 때문이다.

4. 주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료에 따르면 이촌한 이후 이사한 회수는 적게는 4회에서 많게는 적어도 “30회이상이나 셀수 없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10회이상 이사한 사람이 응답자의 43%인 것으로 보아 주거이동이 매우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이동은 한 두차례 광역 생활권을 벗어난 이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순한 이사에 불과하지만, 주거이동이 잦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어에서 광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 경우는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함께 자취하고, 혹은 가까운 친척집에서 잠시 기거하다가 자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등학교 시절 3년동안 내내 “하숙집”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입시준비를 하면서 자취를 한다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다. 전기밥솥, 전기밥통 등 조금 편리한 주방용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끼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오는 길

에 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에 들러서 반찬거리
를 장만하는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물론 밀반찬과 식
량은 한달에 한두번씩 집에서 날러다 먹는 수
밖에 없다.

또한 친척집에서 기거하는 것도 맘 편한 일
은 아니다. 대부분의 친척들도 우선 먹고 살기
에 바쁘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친척들(흔히 조카나 질녀)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이나 언니의 간청에 못이겨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은 셈치고 조카나 동생을 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시절 3년동안 학생은 자취,
하숙, 친척집을 번갈아 가면서 겨우 마치고,
노동 청소년은 자취, 친척집, 기숙사를 전전하
게 된다.

이촌 청소년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잦은
이사는 이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이
떠돌이와 같이 매우 유동적임을 알려준다.

이촌 청소년들이 초기에 도시에 정착하면서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리하여 보
면, 거처의 제공자 또는 동거자는 대부분 가족
의 일부나 친척, 고향친구 등 대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5. 관계망

이촌 초기의 관계망은 이촌 중기나 후기와
두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한 가지는 이촌 청
소년들은 주로 가족과 혈연에 의존하고 지연이
나 학연 등은 간혹 선택적으로 이용할 뿐이라
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보다 근본적인데
이들은 스스로 관계망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관
계망을 활용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촌 초기의 관계망은 그 범위가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망 조차 미약
한 사람은 사회적인 고아인 셈이다. 이 점에서
학업으로 이촌한 청소년은 학연이라는 줄이 있
기 때문에 기존 관계망의 영향을 조금 덜 받지
만, 취업으로 이촌한 사람에게는 관계망이 “생
사여탈권”에 버금하는 위력을 가지게 된다. 특
히 직업의 선택, 직장생활 등에 있어서 빠른
정착은 바로 관계망의 넓이와 질적 수준에 의
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에도 지연, 학연, 직연 등에 의해서 소
모임이 구성되어 야유회를 가거나 등산, 그룹
미팅 등을 시도하고, 간혹 우정회, 상조회, 계
등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임의
성원이 매우 유동적이고, 흔히 학교의 졸업,
직장의 퇴사와 함께 소모임은 깨져버린다.

IV. 이촌 청소년의 중기 정착과정

1. 진로

이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시기는 인생의 갈림길에 해당된다.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대학의 문은 출세의 가도로 가는 톨게이트와
같은 것이다.

한편 고졸·대입의 전환기는 대학에 낙방하
거나 대학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시점이다. 이때 국졸·중졸 청소년과
똑같이 밀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와
이셔츠에 벡타이를 매는 사무직으로 시작하
는지는 인생이란 긴 항로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다. 이때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주로 학업성적
과 진로지도 또는 직업소개자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

물론 국졸·중졸직후 취업을 한 이촌 청소년

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비인간적 노동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연속선상에서 이 시점을 맞이한다.

2. 학업

모집단 123명 중에서 현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14명으로 전체의 11.4%에 불과하다. 대학진학자들은 그 수는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대학을 마치 “출신 고등학교나 출신교장의 대표선수”처럼 다니기 때문에 남의 눈에 된다.

그들이 대학에 입학한 시기와 다닌(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과를 정리하여 보면, 제시기에 입학한 사람은 전체 대학생의 3할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수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간 경우이다.

이혼 청소년이 대학을 진학한 경우, 본 연구는 (1) 왜 그 대학 그 학과를 선택했는가? (2) 대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가? (3) 그리고 대학생활은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도시 정착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번째 질문인 대학과 학과의 선택 과정을 보면 대개 대학은 성적에 따라서 선택하고, 학과는 당사자의 의지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신의 성적으로 합격 가능한 수준의 학교를 택한 후에 자신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학과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고3 담임선생이나 진로지도 전문가의 영향을 다소 받았으나 최후의 선택은 주로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합격의 소식”을 듣는 것은 아니다. 산술적으로 대학 입시자 4명중에서 3명이 불합격의 쓴

잔을 마실 수 밖에 없다.

한편 갖은 고생끝에 대학입시에서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으나 앞으로 4년동안 학자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는 합격의 기쁨을 순식간에 압도할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다. 현역이나 재수로 대학을 들어간 이혼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나 형 그리고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학자금을 마련하고, 개중에는 본인이 가정교사 등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의 부담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대학에 들어간 시기는 80년 과외금지조치로 안정되고 값비싼 “돈벌이”인 과외조차 불가능해서 이혼 청소년들이 제법벌이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매우 벅찬 시기였다. 이렇게 홀로서기가 거의 불가능한 청소년들이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형제자매이고 학자금 장기융자 제도도 큰 힘이 되었다. 또한 학비부담을 분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군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학을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대학은 하나의 “현실”이지만(이었고) 대학 취학의 기회를 박탈당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대학은 여전히 이상향이고,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몸담고 싶은 목표가 되기도 한다.

3. 직업

이혼 청소년들의 중기 도시정착과정에서 직업은 단순한 밥벌이 이상이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혼한 청소년들에게 직업은 2-3년동안 앞가림에 불과했다면, 고등학교 졸업이후시기의 직업은 삶의 터를 닦는 도구이고, 직장은 뜻을 펼치기위한 삶의 장이란 의미가 강조된다.

그러므로 이시기에 이혼 청소년들이 도시에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직장을 어떻게 구하는가? (2)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가? (3)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등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직장을 어떻게 구하는가? 즉 직장을 선택할 때 누가 소개하고, 어떤 직장을 구하는가? 국민학교나 중학교 졸업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등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과정에서 매개체는 학교의 추천, 가족과 친지소개, 광고와 직업안내소 알선 등이다. 취업과정에서 매개체의 선택은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먼저 학교의 추천이나 공개 채용에 관심을 가지고, 차선책으로 가족과 친지에 의존하며, 마지막으로 신문광고·벽보나 직업안내소를 찾아 나선다.

그러므로 이촌 청소년들의 첫 직업은 취업의 매개체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 즉 학교가 추천한 직업은 주로 제조업체의 생산직이나 사무직이고, 가족과 친지가 소개한 직업은 그 가족과 친지가 속해 있는 직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문광고·벽보나 직업안내소가 알선하는 직업은 음식점 점원이나 영세사업체의 공원 또는 보조 등이다.

취업의 소개자에 따라서 직업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과 전망도 달라진다. 즉 학교의 추천이나 공개채용에 의해서 입사한 사람은 그 직장에서 수년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벽보나 직업안내소에 의해 취업한 사람은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선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견문을 넓히고,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시기 이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일자리는 음식점의 점원, 영세제조업체의 공원이거나 보조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세일즈 등 도시의 허드렛일뿐이다. 그러므로 이촌 청소년들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록 보잘 것 없는 직책일지라도 성실히 수행해서 그곳에서 인정 받고 크는 수 밖에 없다. 잦은 직업이동은 도시정착을 그만큼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촌 청소년들은 도시 토박이보다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여유있게 찾아 나설 수 있는 맘의 여유가 없으며 직장의 노동조건이 나쁠수록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교묘한 술수로 종업원(노동자)을 통제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퇴직시에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떼어먹은 원색적인 것과 노동자의 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적인 관례를 통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간 노동 통제 술수는 임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돈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노동통제를 이들은 어떻게 벗어났는가? 불법에 맞서서 합법적인 힘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바로 공권력에 호소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흔히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인 이촌청소년들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4. 주 거

이촌 청소년들의 도시정착의 과정은 여러가지 지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중 한가지 지

표는 밀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노동청소년의 경우 이촌 초기에 일자리가 불안정하여 이곳 저곳을 떠 돌아 다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자리가 정착되고 아울러 거처도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거처가 정해지면 질수록 직장을 쉽게 옮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촌 청소년들의 이촌 중기 주된 주거상태를 보면, 학생의 경우 친척 집, 자취, 하숙이 대종을 이루고, 직업인은 친척집이나 하숙보다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임시거처”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이촌한 청소년들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처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들이 신세질만한 마땅한 형제자매의 집(방)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숙식제공”이란 달콤한 사탕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숙식제공” 혹은 “침식제공”은 노동력을 가장 확실하게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소년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한다.

이점에서 학생은 일하는 청소년보다 다소 낮지만 기숙사시설이 학생의 요구에 비교할 때 매우 적고, 방학이나 휴학시에는 입주자조차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퇴소하여야하기 때문에 주거생활의 어려움은 상존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방세 때문에 도저히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독서실 등 비주거용 거처에서 사는 경우도 “방세”의 부담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곳에서의 삶을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눈을 부칠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세끼 식사는 먹는 것이 아니라 때우는 것이다.

5. 관계망

이촌 청소년들이 도시에 정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가 도시로 옮겨진다는 뜻을 넘어서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새로운 고장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그 뿌리내림의 정도는 이 지역에서 얼마나 발이 넓으냐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인연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가족과 혈연이라는 연줄을 비롯하여 지연, 학연, 직연, 종교연 등 취득할 수 있는 연줄을 짜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촌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고향이 같고, 어린시절을 함께 살았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끼리 모임을 형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 연구의 모집단의 경우에도 서울로 이촌해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몇차례의 준비모임을 갖고 1981년 3월에 밤골회를 발족하였다. 밤골회는 “회원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후배들을 키우며, 향토발전에 힘쓴다”는 목적을 가지고 정기모임 개최, 회보발간, 모교에 도서책 보내기 등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이 고향이 같은 이촌 청소년만의 관계망 형성뿐만 아니라 이촌 청소년들은 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이시기의 관계망은 이촌 후기의 인간 관계망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이시기는 “이성교제”가 왕성한 시기이다. 이때의 이성교제나 연애가 반드시 결혼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고, 자신만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성친구를 갖게 된다. 이성친구와의 교제 범위도 고향, 학교, 직장,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14명 중에서 10명이 현재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상태에 있는데 그 중 3명이 이시기에서부터 현재의 배우자와 사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이성교제는 결혼으로 연결되는 건수보다는 연결되지 않는 건수가 더 많다.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가슴앓이”를 되풀이 하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숙하는지도 모른다. 특히 남자들이 3년동안 군입대를 함으로써 생긴 단절의 기간에 여자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은 통계적으로 “정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V. 이혼 청소년의 후기 정착과정

1. 진로

이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군 제대와 대학교의 졸업은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되기 쉽다. 청소년기의 방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되풀이된 시행착오는 이제 종착점에 도달하게 된다. 예전에는 애교로 봐주던 시행착오가 이제는 무능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지난 삶을 반성하고, 하나의 성인으로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된다. 교육에 있어서는 출세가도로 가는 막차를 탈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길을 뚫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직업에 있어서는 군입대 전에 하던 직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남의 눈에 물대주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반복되는 가슴앓이를 진정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찾기 보다는 있는 사람중에서 골라서 동지를 틀어야겠다는 걱정과 그 구체적인 몸짓이 이 시기에 나타난다. 아울러 그동안 모은 돈을 긁어모아서 전세방이라도 구하고,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서 한가족의 가장으로서 내집 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궁지에 몰리게된다. 이런 와중에서도 더욱 원만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새로이 관계망을 짜고, 짜여진 관계망은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이 되도록 쉽없이 잔손질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학업

모집단 123명중에서 현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사람이 14명이다. 이중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8명의 자료에 따르면 제때에 입학(현역이나 제수로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인 5명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학하여 본인이 떨어져 대학에 다닌 것이다. 또한 모집단 123명 중에는 이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들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거나,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업무익혀서 옷사람에게 잘 보이라? 청춘사업하라? 바쁜 와중에 왜 다시 대학교를 뒤돌아 보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소년과 그 가족 아니 온 국민이 열병처럼 앓고 있는 대학진학 바람증인지도 모른다. 이들의 대학 진학요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한 단계 올라 갈 때 마다 목구멍에 걸리는 학력이라는 낚시바늘이 있고 그 계통에서 손이 매듭이 끊어진 사람보다 책가방이라도 조금 더 매고 다닌 사람 - 공부를 했던 안했던 간에 - 이 더 대접받는 사회에서는 힘없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학을 가는 외길 밖에 없는 것이다.

3. 직업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탈바꿈하는 이 시기에서 직업생활은 이미하던 직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직종을 찾아 나설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이다. 다시말해서 일해온 직장에서 사다리타기를 할 것인가? 전직 아니면 자기사업을 할 것인가? 에 얽힌 이야기는 곧 이촌 청소년의 후기 도시 정착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조사 대상자의 현재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보다 먼저 일자리를 가진 다른 사람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물론 내 딴는 첫발은 다르겠지만 꿈 많은 젊은이를 기다리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끊임없는 수련일 뿐이다.

일종의 도제 생활이 끝나면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진급인가? 전직인가? 아니면 자족인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촌한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지금까지 해오던 직업을 반성하고 전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다리타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사업을 개척하고자 한다. 그 전환점은 흔히 군제대 직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들은 전직을 결심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 일 자리를 찾았는가?

젊은이들이 어느 길을 택하던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수집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는 빼 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된다. 본 설문조사 대상자 14명 중 이 시기에 자영업에 시작한 사람이 4명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군입대전까지 큰 회사나 조그마한 가게에서 남의 일을 해주다가 군제대후 스스로 자신의 가게나 일거리를 마련한 경우이다. 이들이 자기 가게를 차리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업종의 선택은 형과 친구 등의 조언을 받지만 결국 본인의 경험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있는 품목을 선택하고 또한 여기에 성공의 관건이 있다. 필요한 자본금은 대략 2,000만원 내외인데, 자신이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형이나 친구 등 대면관계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자영업의 개업시기가 결혼시기와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는 자영업을 할 때 필요한 믿을만한 일꾼으로서 배우자를 생각하고, 혼수비용이라도 아껴서 우선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4. 주거

청소년기에 이촌한 젊은이들이 도시에 정착하는데 주거문제가 얼마나 큰 장애요소이고, 주거-주택문제가 당면과제에서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여러 말이 필요없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촌 청소년들이 도시적응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주거문제와 직장문제 그리고 언어(사

투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집이 없어 매년 값싼 방(방)으로 이사다녀야 하는 문제보다 큰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도 기숙사, 여관, 가게방, 친척집 등에서 사는 비율이 적지 않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단칸방이라도 전세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귀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맘 편하게 기다릴 수 없을만큼 주거문제의 해결이 절박하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거나, 결혼식 전에 동거를 시작한다. 실제로 조사대상자 중에서 9명이 결혼을 하였거나 사실혼 상태에 있는데 이중 동거후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2/3이다. 나머지 3명중에서도 1명은 소개받은 후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1명은 군제대 직후 결혼을 하여 이들의 주거문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전동거”는 이들에게 삶의 한 양식 일 뿐이다. 대부분 경제적 궁핍때문에 결혼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루거나, 가족 내에서 “차레”를 기다리기 위해서 1-2년 예식을 유예한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는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않다.

청소년기에 이혼한 젊은이들은 동거나 결혼을 계기로 하여 주거상태가 획기적으로 변하는데, 기숙사나 숙소 또는 남의 가족의 동거인으로 살던 틀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만든 가족을 위하여 전세방을 마련한다. 그런데 전세방은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는 전초기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해서 가처분 소득의 큰 몫을 주택청약저축과 재형저축에 붓고 있다.

물론 조사대상자 14명 중에서는 두명이 내집을 마련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형님과 처의 도움으로 집을 장만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집

을 마련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 불과하다.

한편 이혼후 십년이 지난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이상이다. 나와 나의 가족이 사는 방이나 집의 개념을 넘어서서 삶터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이주한 것에 대해 모두 도시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도시)에 어느정도 애착심을 느끼는지를 보면 우리지역이라고 느낀 사람이 64.3%이다. 남의 지역이라고 느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처럼 현재의 생활조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당시 같은 지역(동네)에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중 현재 그곳에서 사는 사람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은 고향에 있는 사람보다 이혼한 사람이 더 밝다고 생각하거나(71.4%) 적어도 둘 다 같다고 보며, 가까운 장래에 장기적으로 귀향할 계획은 한 사람에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관계망

청소년기에 이혼한 젊은이들이 도시에 잘 정착했느냐의 여부는 경제적으로 잘사느냐와 인간관계가 원만한지에서 직감할 수 있다. 이혼 초기에는 혈연, 지연 등에 의해서 관계망이 짜여지지만, 이혼 중기를 거쳐 후기에 오면서, 기존의 관계망은 더욱 공고히되고 새로운 관계망이 신설되거나 보완된다. 그리하여 이혼 후기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적게는 한 두 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이나 된다. 인간관계는 물질, 정보, 정 등 모든 자원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한국사회에서 인간관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거의 없다. 적어도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상, 고향, 학교, 직업, 종교 등 서로 같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을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모임이 동창회, 직장(직업)상조회이고, 어느 모임에서나 친교와 정보교환을 위하여 전화를 걸고, 술을 내며, 경조사에 인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혼한 청소년들이 혈연, 학연, 지연, 직연, 종교연 등을 뛰어넘어 보다 공식적인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율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단체나 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활동의 가치수와 참여정도가 아직은 미약하다.

가족관계도 관계망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배우자 관계를 보면 14명 중에서 결혼을 하였거나 사실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9명이고, 연애 중인 사람은 3명이며,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였으며, 배우자의 주요 인적사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결혼을 하였거나 연애중인 12명의 배우자 선택방식의 경우를 보면 순수한 중매로 사귄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연애 혹은 소개받은 후에 연애로 결혼 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소개해주는 사람 또는 사귄 계기를 보면 학교 동창 또는 선후배, 형수, 이모 등 가까운 친척의 소개, 직장동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혼시장은 주로 같은 물에서 이루어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혼 청소년의 경우 비교적

사귄 기간이 3년이상으로 긴 사람과 1년 미만으로 짧은 사람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주로 순수한 연애인 경우이고, 후자는 소개받은 후 연애하는 경우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귄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교제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경우보다, 동거과정을 거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선택범위는 서로서로 속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같은 물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요성장지 또는 배우자의 혼전거주지가 서로 시도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을 앞둔 남녀가 무연중에 사교의 범위내에서 결혼상대자를 찾고, 사교의 범위는 바로 공간적 범위와 사회 계급의 교차선상의 어떤 지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결혼은 배우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 조건이다. 우선 예단, 예물, 예식장비용 등 예식비용, 신혼살림비용, 최소한 전세보증금은 있어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어떻게 염출되는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어떤 계층은 열쇠를 세개 또는 다섯개씩 차고 오는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 청소년에게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이다. 이들은 예식비용은 축의금으로 떼우고, 신혼살림은 신부가 혼전에 번 돈으로 장만하거나 신부 또는 신랑이 쓰던 살림에 몇가지 살림을 보태어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가에서도 특별히 적음(분가)이라고 나누어 줄 것도 없거니와, 있더라도 농토의 소출로 양식이나 얻어먹는 것이지 농토를 물려받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혼 청소년들이 부모와 어떻게 교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이혼할 때는 단신 또는 일부 가족만 이혼해서, 현재는 부모가 모두 자녀를 따라 도시로 온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가에 노부부 또는 모 혼자만 남아 있거나, 한 기혼 자녀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한 자녀들은 일년 중 주로 명절 등에 1~3차례씩 방문하고, 용돈을 드리며, 본가에서는 쌀과 양념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돈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부모는 이혼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지만, 이혼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동일 생활권에 1명 이상의 형제 자매가 살고 있어서 상부상조하고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인구가동이란 시각에서만 이루어졌음을 비판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에 정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지난 15년동안 이혼이 가족단위보다는 개인 혹은 일부가족 단위로 이루어졌고, 이혼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었음에도 “이농”이란 시각에서 본 기존의 시각을 극복하고자 “이혼 청소년”이란 새로운 낱말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혼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 그 자체, 즉 이혼 청소년이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욕구와 문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동원 과정에 대한 사실 발견이란 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상집단을 1973년 2월에 울어면 소재 국민학교를 졸업한 남자 123

명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이혼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혼하였음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시절, 대학교시절과 군복무기, 군복무이후에서 현재까지를 각각 이혼 초기, 중기, 후기로 그 시기를 구분하며, 각 시기별로 진로설정, 학업, 직업, 주거에서 직면한 욕구와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관계망 등 자원활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혼 청소년들의 시기별 주된 욕구와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활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혼 청소년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주된 연구관심은 왜 이혼하였는가, 어떻게 정착하였는 지이다. 청소년들이 이혼하게된 주된 이유는 학업 또는 취업이고 취업검 학업인 사람도 소수 있다. 학업으로 이혼한 사람은 통학권 내에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대학 진학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모의 도움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주거는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자취생활을 한다.

취업으로 이혼한 사람은 농사밖에는 종사할 일자리가 없고, 그것조차도 부모나 다른 형제와 함께할 만큼 많은 농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다.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높은 산업재해가 혼재된 영세 제조업체, 음식점, 가게인데 이들은 이곳에서 주로 먹고 자면서 일한다.

도시의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이러한 일터마저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더 나은 곳을 얻을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범의 보호

망 밖에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의 경제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도, 주경야독을 꿈꾸는 이혼 청소년의 수는 많지만 그 꿈을 실현시킨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8시간만 일하고, 남이 8시간 쉴 때 나는 공부하겠다는 그들의 꿈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직장은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기에 결국 취업 혹은 학업 중에서 한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혼 청소년들의 중기 정착과정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출세의 가도로 가는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 것인지를 선택하면서 시작된다.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은 주로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고 관심과 우연에 따라 학과를 지망하게 된다. 대학진학은 가족중 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제때에 대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친척집이나 하숙집에서 기거하면서 학업, 서클, 종교활동 등을 폭넓게 한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혼한 청소년들에게 직업은 2~3년 동안 앞가림에 불과하다면, 고등학교 졸업이후 시기의 직업은 삶의 터를 닦는 도구이고 직장은 뜻을 펼치는 장이다. 이들의 취업과정은 먼저 학교의 추천이나 가족과 친지 등 아는 사람의 소개에 의존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광고나 직업안내소를 이용한다. 이는 취업의 매개체에 따라서 직업과 직장의 질적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취업자들은 형과 누나 등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동거인으로 기거하고, 기밀 언덕이 없는 사람은 주로 “숙식제공”을 받는 대신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이혼 청소년들의 후기 정착과정은 늦었지만

대학의 문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대학에의 미련을 버리고 참말로 직업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학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스스로 벌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취업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의 직업, 직장이 나의 인생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하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의 길을 계속하는데, 이때 사무직 종사자는 직장(직업)내에서의 사다리타기를 선호하고, 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는 자기 가게를 차리게 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란 노동현실을 딛고 홀로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근면하고 새로운 정보를 빨리 입수한 경우이다. 개업에 필요한 자금은 저축한 금액에 형이나 배우자 혹은 친구의 도움으로 확보된다.

본 설문조사 대상자의 도시정착과정을 요약하면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의 현재 정착단계를 생계 및 주거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어느 정착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일시적 주거문제 해결단계라는 가장 초보적인 정착단계는 14.3%이고, 일시적 주거와 생계문제 해결과 장기적 생업문제해결이 각각 35.7%, 21.4%로 주류를 형성하며, 장기적 생업과 주택문제를 해결했다고 한 사람도 28.6%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혼 청소년들이 이혼 시기마다 자신들이 직면한 제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관계망도 변화되는데, 이혼 초기에는 가족과 친척에 의존하지만 이혼 중기와 후기에는 학연과 직업에 더 의존하게 되고 지연은 다소 적지만 꾸준히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이혼 청소년의 도시정착과정

이혼 초기			이혼 중기			이혼 후기			정착 정도 평가	
학업	직업	주거	학업	직업	주거	학업	직업	주거	본인	연구자
고등학생	자취		세일	형님집		고졸	부장	동거전세	2	3
검정고시	자취	대학생		고모집		대학원졸	연구원	결혼전세	3	3
고등학생	하숙	대학생		하숙		대학원졸	의사	결혼전세	2	3
고등학생	자취	대학생		부모집		대졸	회사원	결혼전세	4	3
직업훈련원생	친척집	고등학생	공원	하숙		대졸	주임	부모전세	4	3
직업훈련원생	자취	검정고시		자취		대재	기능직	미혼기숙	2	2
	점원	가게방		점원	가게방	국졸	정육점자영	결혼자가	3	4
고등학생	자취		웨이터	가게방		고졸	부동산중개인	미혼누나	2	3
고등학생	자취	대학생	기수	기숙사		대재	기수	미혼사택	4	4
	공원	형님집		노가다	여관	중졸		여관	1	1
	기능공	가게방		기능공	가게방	중졸	간이주점자영	결혼일세	2	3
고등학생	자취	대학생	은행원	기숙사		대졸	은행원	미혼기숙	1	3
고등학생	자취	대학생	연구원	형님집		대졸	싱크대자영	결혼일세	4	3
고등학생	자취	직업훈련원생		기숙사		고졸	과자도매업	결혼자가	3	4

비고 : 1. 일시적 주거문제 해결 2. 일시적 주거와 생계문제 해결 3. 장기적 생업문제 해결 4. 장기적 생업과 주택문제 해결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대영·이효구(1976),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 : 1965~70, 한국개발연구원
 농협중앙회 조사부(1988), 농가 생활양식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윤여덕·김종채(1984), 이농민의 도시적응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재석(1989),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황정규 외3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Lee On-Jook(1984),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논 문>

- 김은실(1983), 한국 도시빈곤의 성격에 관한 연구 : 봉천동 무허가 거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정연(1985), 농촌인구의 이동과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전남 강진군 송학리 출신 서울이주자를 사례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재규(1985), 도시 빈민지역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현호(1971), 한국 농촌 이촌가구의 사회학적 고찰-도시로 이주한 가구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종주(1966), 서울시 이입인구에 관한 연구, 인구문제논집 제3호, 인구문제연구소
 윤종주(1976), 서울시 전입가구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5호, 서울여자대학교
 이용교(1990), 사회관계망이 결혼식에서 상호부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15호,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용만(1986), 농가자녀의 이촌취학과 농가교육비 지출, 농촌경제 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숙(1979), 서울 근교 농촌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광전리의 사례, 인류학논집 5
 이창언(1983), 이농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해정(1989), “노는 애들”의 세계 : 중학생 또래 집단의 학교 밖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자환(1982), 서울 사당동 지역의 도시화 과정, 인문사회과학, 성심여대
 조형(1982), 한국의 도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최홍기(1989), 산업화 과정에 따른 한국농촌의 가족구성의 변화, 크리스찬 아카데미편, 가족-가족의 변화와 전망-, 우석
 허석렬(1983), 도시 무허가 정착지의 고용구조에 관한 일연구, 한국사회연구 제1집, 한길사
 홍동식(1985), 상대적 도시유인이 농촌청장년들의 이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제8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the Settlement Process of Rural-to-Urban Youth in Korea

Yong-Gyo Lee*

This paper is a study on settlement processes of rural youths in the urban. Since 1960s, from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urban population increased rapidly and rural population decreased naturally. This kind of population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has brought significant side effects as a social problem in this country.

This paper describes the urbanization processes of rural youths in the following questions:

1. Why did you leave your hometown?
2. How did you settled later in the urban area?

3. What was significant problems in your mind?

The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mostly left their hometown for higher education, some of them for job and others for both. Their initial state in a large city, however, starts as a blue-colour workers. Their attitude toward workers is rather positive than hopeless rural lives. They could overcome the problems such as low-income, bad working conditions, etc, for better lives in the future. Later helping network was formed from peer groups and school seniors rather than the relatives.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Youth and Children